

# 장흥군,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농업인 교육'

### 졸업생 50여명 참석 농업인대학·농업아카데미 졸업식 개최 고품질 참다래 생산으로 실질적 소득증대 이어지도록 진행

장흥군은 2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졸업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대학·농업아카데미'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과정은 지난 3월부터 1년 동안 전문농업인 육성 및 장흥군의 농·특산물 가공기술 발굴을 위해 진행됐다.

농업인대학 농산물 가공과정은 1차적인 농산물 생산에 머물러 있는 지역 농업을,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가공을 통한 새로운 상품 개발의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식품가공기술과 위생, 장류 제조기술,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개발, 창업의 이해 등

이론교육과 전문가와 함께하는 실습교육으로 편성했다.

농업CEO양성을 위한 농업아카데미는 참다래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이론교육은 물론 현장컨설팅 및 선진지 견학 등 최첨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패키지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고품질 참다래 생산으로 교육생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이어지도록 진행됐다.

농업인대학 학장인 김성 장흥군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농업발전과 전문농업인 육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인대학 이오임 자치회장은 "지역 농산



물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들어보면서 농산물 상품화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 완도군, 활력 넘치는 어촌 조성 가속도

### 국가 어항 개발·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 등 추진 박차

완도군은 민선 8기 공약 사항으로 '더 활기찬 지역 개발'을 위해 ▲체계적인 국가 어항 개발 사업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추진에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국가 어항 개발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어항 시설 정비 및 개선을 통해 어항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완도군에는 8개의 국가 어항이 있다.

노화 이목항은 사업이 마무리 단계이며, 금일 사동장과 도장항, 약산 당목항, 청산항과 여서도항, 소안항, 보길 보옥항 등에 총 206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 주요 내용은 방파제 보강, 호안도로, 점안 시설, 물양장, 선양장 조성 등이다.

군은 사업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중앙부

처를 수차례 방문하며 사업비 확보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은 생활기반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어촌의 혁신 성장을 꾀하는 사업으로 완도군에서는 보길, 약산, 충동, 고금, 금당권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약산권역에 약산 낙원, 실내 체육시설인 100세 하우스, 충동권역에는 안전 거점항, 청장년 교류 센터, 귀어 체험 하우스, 고금권역에는 자원 순환시설, 문화센터, 금당권역에는 침수 해안 배수시설 등을 조성한다.

지난 7월에 신규로 선정된 금빛안권역(금당)은 섬마을 탄소 저감 에너지 공급망 구축, 공중목욕탕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해남군 "일자리 창출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 열쇠"

### 2022년 39개 사업 1122명 일자리 창출 지역활력 이끌어

해남군은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일자리 창출 성과를 특별히 거두고 있다. 해남군은 2022년 39개 일자리사업을 통해 1,122명의 직접접 일자리를 창출했다.

해남군은 올해 △직접일자리 창출, △민간취업 연계지원, △창업지원 등 사업 유형에 따라 직접일자리 788명, 민간취업 연계 지원 266명과 창업 지원 58명 등 총 1,122명의 일자리창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

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해남형 공공근로사업에 639명이 참여해 관내 취업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해남군은 지난 2019년 일자리 전담팀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 9월 조직개편을 통해 청년팀을 신설, 청년일지리를 전담하는 체계로 일자리 창출과 지원의 투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진도 인재 키우자... 장학금 3억3030만원·431명 지급

진도군이 올해 하반기 장학금 431명을 선발해 장학금 3억3,030만원을 최근 지급했다.

(재)진도군 인재육성장학회는 올해 장학금 지급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2022년 하반기 학업성적·특기·보배사랑 장학생'을 선발했다.

대상은 성적 우수 중·고등·대학교 장학생과

예체능 특기자, 다자녀가정, 저소득가정, 한부모가정 등 보배사랑 장학생으로 총 431명이다.

초등학생 20만원(4명), 중학생 25만원(66명), 고등학생 50만원(125명), 대학생 70~150만원(236명)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진도=조상용기자

## 강진군, 청년마을 공유 주거 조성 공모사업 선정

### 병영면 성남리 일대 3층 건물 2023년 완공 목표

강진군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2022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전국 '청년마을만들기' 해당 지자체 27개소 중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3곳의 선정지에 강진군이 확정되면서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방 청년들의 유출방지와 도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마을만들기의 후속 사업으로, 청년들의 공유 주거시설을 조성해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취·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진군은 정착 준비 및 자립기반 확보 기간 동안 주거공간이 부족하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공모사업에 응모했으며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2차 현장심사에 직접 참여했던 강진원 강진군수는 "정착 준비를 위한 주거공간이 부족하다는 청년마을만들기 참여자들의 의견이 많았는데, 공유주거 시설 유치를 위한 강진군의 열정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했던 것이 좋은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청년 지원과 관련된 국도비 공모사업에 도전해 강진에서 청년 창업에 대한 기적을 이루고, 청년이 강진으로 돌아오는 강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안에 국비 10억 원을 교부받아 군유지인 병영면 성남리 일대에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청년 공유주거시설을 조성한다. 연면적 524㎡의 3층 건물로 원룸형 숙소, 셰어하우스형 숙소 및 커뮤니티센터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시설이 건립되면 병영시장, 불금불과 청년창업공간과 연계해 청년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청년인구 유입과 청년창업에 선도적 역할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불금불과 축제장 내 공간에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청년 창업매장을 방문하도록 유도해 병영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며, 나아가 젊음과 다양성으로 새롭게 변하는 병영면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청년들이 정착한 후에는 전원주택 1,000세대 및 빈집정비 1,000세대 조성사업과 연계해 청년과 주거지를 1:1로 매칭,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형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이 돌아오는 강진 실현을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앞서 강진군은 2022년 행안부 공모사업인 '청년 마을만들기'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1년에 2억씩, 3년 동안 총 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다.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2주~4주동안 강진에서 살아보기, 지역탐색 및 취·창업 체험 등에 참여한 청년중 최종 11명이 강진에 정착하기를 희망했다.

강진=김영일기자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